

프라지칸텔(praziquantel)

요약

프라지칸텔은 기생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구충제이다. 일반적인 구충제로 치료되지 않는 어폐류나 덜 익힌 육류에 의한 흡충과 조충 감염에 사용된다. 함께 복용하면 프라지칸텔의 약효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으므로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들과 약물상호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작용은 메스꺼움, 어지러움, 두통 등이다.

외국어 표기	praziquantel(영어)
CAS 등록번호	55268-74-1
ATC 코드	P02BA01
분자식	C ₁₉ H ₂₄ N ₂ O ₂
분자량	312.413 g/mol

유의어·관련어: 기생충약, vermicide, 구충제, 구충약, anthelmintic, vermifuge, parasiticide, 디스토시드, Distoc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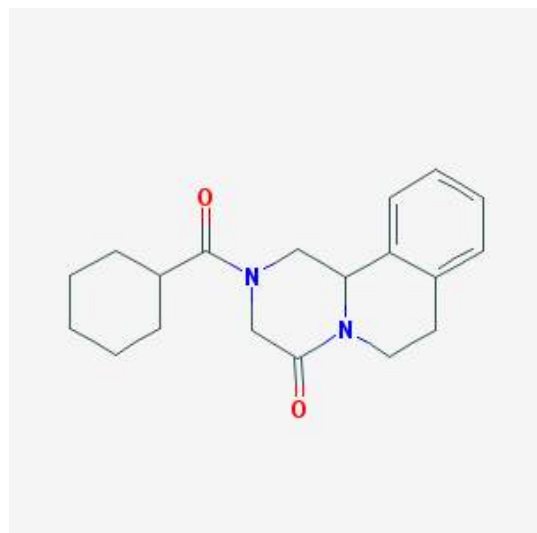


그림 1. 프라지칸텔의 구조식

약리작용

장내기생충의 감염경로는 크게 채소, 어패류, 육류로 나뉜다.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회충, 편충, 요충, 십이지장충 등이 대표적이다. 어패류로 감염되는 기생충은 간흡충, 폐흡충 등이 있다. 육류를 통해 감염되는 기생충은 유구조충, 무구조충 등이 있다. 프라지관텔은 구충제로서 그 중 흡충류(flukes)와 조충류(cestode)에 의한 감염을 치료한다.

흡충류는 디스토마(distoma)라고도 불리며, 주로 익히지 않은 민물고기나 어패류를 섭취한 경우에 감염된다. 빨판을 가지고 있어 인체의 조직에 붙어 기생한다. 간흡충(*Clonorchis sinensis*)은 민물고기에서 많이 발견되며, 간담관에 기생하여 간 비대, 복수, 황달 야맹증, 혈변, 장출혈 등을 유발한다. 폐흡충(*Paragonimus westermani*)은 민물 게를 통해 감염되며 폐에 기생해 기침, 객담, 객혈 등을 일으킨다. 주혈흡충(*Schistosoma mansoni*, *S. haematobium*, *S. japonicum* 등)은 오염된 물에서 작업을 하거나 수영 등을 할 때 피부를 통해 감염된다. 혈관벽에 기생하여 발열, 두드러기, 혈변, 혈뇨 등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간흡충에 의한 감염(간디스토마)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조충류는 촌충(tapeworm)이라고도 불리는 길다란 기생충이며 역시 빨판을 가지고 있다. 익히지 않은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다. 무구조충(민촌충, *Taenia saginata*)은 덜 익은 소고기를 통해 전염되며, 소화기의 장폐쇄, 구토, 설사, 복통, 충수돌기염 등을 일으킨다. 유구조충(갈고리촌충, *Taenia solium*)은 덜 익은 돼지고기로부터 감염되며,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신체 각 부위에 기생해 낭미충증을 일으킨다. 무구조충, 유구조충의 유충(애벌레)을 낭미충(cysticercus)이라고 하는데 때때로 중추신경계를 침범해 경련, 전신 마비, 실명, 간질과 같은 증세를 일으킨다. 왜소조충(*Hymenolepis nana*)은 쥐의 소장에 기생하므로 인체에 감염률은 낮은 편이며, 감염 시 장의 출혈, 궤양, 복통, 설사, 구토, 빈혈 등을 일으킨다.

프라지관텔의 명확한 약리작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생충의 세포막에서 칼슘 이온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기생충의 조직을 수축시키고 마비를 일으켜,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효능·효과

프라지관텔은 흡충(간흡충, 폐흡충, 주혈흡충)과 조충(무구조충, 유구조충, 남아메리카 어류조충, 왜소조충 등)에 의한 감염을 치료한다. 디스토시드® 등의 제품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용법

치료할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용법이 다르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프라지관텔로 체중 kg당 20~40 mg씩 1일 1~3회 투여한다. 치료할 기생충의 종류별 용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1. 프라지관텔의 치료할 기생충의 종류별 용법

기생충의 종류		용법
흡충	간흡충	1회 25 mg/kg, 1일 3회 1일간
	폐흡충	1회 25 mg/kg, 1일 3회 2일간
	아프리카 주혈흡충	40 mg/kg, 1회 투여 또는 20 mg/kg씩 1일 2회 투여
조충	무구조충	10 mg/kg, 1회 투여
	유구조충	
	남아메리카 어류조충	
	왜소조충	15 mg/kg, 1회 투여

쓴맛이 나므로 정제를 씹지 않고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정제를 분할하여 복용하는 경우에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하루에 여러 번 복용하는 경우 투약 간격이 4~6시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지

- 유구조충, 무구조충의 유충이 눈에 감염을 일으킨 눈 낭미충증(ocular cysticercosis)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리팜피신(rifampicin, 결핵약)과 같은 강력한 사이토크롬 P450 유도제*는 프라지관텔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므로 함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라지관텔 복용을 시작하기 4주 전에 리팜피신을 중단하고, 프라지관텔 치료가 끝나면 다시 복용한다.

* 사이토크롬 P450 유도제: 사이토크롬 P450(cytochrome P450, CYP450) 효소계는 주로 간세포에 존재하며, 수많은

체내외의 화합물과 약물을 대사시킨다. 이 효소계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CYP450 유도제라고 하며 함께 투여한 약물의 대사를 증가시켜 약효에 영향을 미친다.

주의사항

- 신기능 장애 환자, 중등도 이상의 간기능 장애 환자, 디곡신과 같은 심장약을 복용하는 심부전 환자, 부정맥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 고용량을 한번에 투여한 환자나 대량의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부작용이 자주 또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유충이 뇌에 감염을 일으킨 뇌낭충증(cerebral cysticercosis)인 경우에는 전문의에 의한 병원 치료가 필요하므로, 인체낭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복용하는 동안이나 복용 후에 기계조작이나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주의한다.

부작용

프라지관텔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드문 부작용(사용자의 1% 미만에서 보고)

- 소화기계: 출혈성 설사, 구역감, 복부 불쾌감 등
- 중추신경계: 권태감, 피로, 두통, 어지러움 등
- 심혈관계: 서맥, 부정맥 등
- 가려움증, 두드러기, 체온상승, 혈구수의 변화 등

상호작용

프라지판텔과 함께 투여 시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상호작용	약물
프라지판텔의 효과를 증가시켜 부작용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약물	일부 간대사 효소 억제제: 일부 항진균제(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 항암제(세리티닙, 다사티닙, 팔보시클립),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 경구용 푸시드산), 항구토제(아프레피탄트), 위장약(시메티딘), 자몽주스 등
프라지판텔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약물	일부 간대사 효소 유도제: 일부 항경련제(페니토인, 페노바르비탈, 카바마제핀), 말라리아 치료제(히드록시클로로퀸), 폐고혈압 치료제(보센탄), 항암제(다브라페닙, 실룩시맙), 해독제(테페라시록스), 면역억제제(토실리주맙),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결핵 치료제(리팜피신), 성요한풀 등

소아, 청소년 사용

- 4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의 용법을 따른다.
- 4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안전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임부·수유부 사용

- 동물시험에서 모체나 태자에 독성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임신 중에는 약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으므로 임신 첫 3개월간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 혈중 농도의 1/4 정도가 모유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72시간까지는 수유를 중단하도록 한다.

다른 구충제와의 차이점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되는 구충제인 플루벤다졸(flubendazole)과 알벤다졸(albendazole)은 주로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회충, 편충, 요충, 십이지장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한다. 프라지관텔은 어패류나 육류를 통해 감염되는 흡충이나 조충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플루벤다졸과 알벤다졸은 흡충이나 조충에 의한 감염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흡충과 조충 감염의 주요 원인인 민물고기나 덜 익힌 육류를 자주 먹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기생충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 시 프라지관텔을 복용한다.